임실군-베트남 뚜옌꽝성, 교류 활발

뚜옌꽝성 대표단, 임실N치즈축제·고용농가 방문… 자매도시간 협력 방안 논의

임실군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뚜옌꽝성 대표단은 임실군의 공식초청에 응해 지난 8일, 임실N치즈축제 리셉션 및 개막식에 참석한 데 이어 9일에는 청웅 토마토 고용농가를 방문해 축제도 즐기고, 자매도시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실군은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뚜옌꽝성 대표단이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방문해 임실N치즈축제 관람과 협약체결에 따른 고용인원 확대요청 등 문화·농촌인력협의 등 활발히 교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베트남 뚜옌꽝성 대표단은 지난해 5월 협약에 따른 임실군의 공식초청에 응해 지난 8일, 임실N치즈축제 리셉션 및 개막식에 참석한 데 이어 9일에는 청웅 토마토 고용농가를 방문해 축제도 즐기고, 자매도시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8일 치즈축제장을 찾은 뚜옌꽝성 대표단은 대한민국 3대 축제인 임실N치즈축제 행사장을 견학하며 천만송이 국화경관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며 감탄했다.

다음날인 9일에는 관내 토마토 스마트팜 고용농가를 방문해 뚜옌꽝성에서 파견된 근로자들과 만나 근무 여건 및 숙소 등 생활 환경을 세심히 살피고 격려했다.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근로 및 주거환경으로 고용주와 소통하며 한국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대표단은 군 관계자와 계절근로자 인력 운용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군은 농가들의 의견에 따라 한국어 교육 이수 및 농작업 경험이 있는 근로자 우선 선발을 요청했다.

이에 대표단 측에서는 앞으로 송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올해 계절 근로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향후 선발인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단 황 자이 롱 부위원장은 "양측이 그동안 구축해 온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관광·문화·예술·스마트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 양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누리시민 가입자 15만명 돌파

관광지 입장료 감면·맛집·카페·숙박 등 83개 가맹점 할인 혜택

남원시가 생활인구 등록제도인 '남원누리시민제도' 운영 1년 만에 남원누리시민 가입자가 15만명을 돌파했다.

시는 추석 연휴 광한루원과 피오리움 등을 방문한 관외자 7,125명이 남원누리시민으로 등록해 10월 9일 기준 남원누리시민 가입자가 151,476명으로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2023.12.26. 전국 최초로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조례를 제정해 생활인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4.9.2.부터 누리시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남원누리시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광한루원, 피오리움 등 8개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과 맛집·카페·숙박 등 83개 가맹점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는 국제드론제전, 흥부제, 국가유산야행 등 가을 3대 축제와 연계 남원누리시민대상 스탬프 투어를 추진해, 완주자 및 숙박객에게 농산품 할인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 확대와 생활인구 정책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신규 가입 및 관심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키워 남원누리시민 가입이 곧 남원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누리시민은 등록 생활인구로서 인구 절벽 시대,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며 지방 소멸위기의 대안"이라며, "많은 분들이 남원시의 생활인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23가구 대상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완료

남원시는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지난 9월 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 2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이내에서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보강, 주요 항목은 △출입로 및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보수 △보조손잡이 설치 △출입문·복도 확장 △싱크대 높이 조절 등으로, 장애인의 생활 편의와 이동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 속 자립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15~31일 드림스타트 가족 행복 치팅데이 진행

남원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이마트 남원점의 전액 후원을 통해 드림스타트 등록 31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행복 치팅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외식 기회가 적었던 가정에 특별한 간식 패키지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이마트 남원점은 2017년 드림스타트와의 협약 이후 지속적인 후원금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마트 남원점의 후원금 일백여만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치팅데이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가정에 피자 1판, 닭강정 1팩, 콜라1.5L로 구성된 푸짐한 간식 패키지를 선물한다.

남원시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가족 행복 치팅데이가 단순한 간식 제공을 넘어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중한 행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부 합동평가 우수 성과 달성 총력

순창군,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갖고 보완대책 등 논의

순창군은 13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 주재로 9월 말 기준 부서별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점검에 나섰다.

보고회에는 군수와 전 부서장이 참석해 정량지표 실적 전반을 점검하고, 부진 지표와 달성 난항이 예상되는 항목의 원인과 보완대책을 심층 논의했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와 주요 국정·도정 역점 시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순창군은 올해 정량지표 64개, 정성지표 8개 등 총 72개 지표에서 우수 성과를 목표로 전북 도내 다른 시군과 경쟁하고 있다.

군은 올해 정량지표 달성 목표를 95.3%(64개 지표 중 61개 달성)로 설정하고 자체 월별 로드맵을 통해 달성률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지난해 9월 말과 비교해 4.36%포인트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

특히 동일 지표 중 목표를 조기 달성하거나 실적이 상승한 항목이 17개에 달해 체계적 업무 추진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보고회에서는 미달성 지표에 대한 부서 간 협업 전략 강화와 연내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 마련에도 집중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국립임실호국원, '우리는 꽃보다 기억을 남깁니다'

5인 예술인 협업 '플라스틱 조화 헌화' 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국립임실호국원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025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이음' 사업을 통해 5인의 지역 예술가와 협업해 '우리는 꽃보다 기억을 남깁니다'라는 주제로 플라스틱 조화 헌화 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립임실호국원과 김효정(공예), 신명수(연극), 이소정(미술), 천승환(사진), 최아현(문학) 등 총 5명의 예술가가 함께 기획했다.

'플라스틱 조화(造花) 헌화'로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를 성묘객 및 방문객과 공유하며, 추모의 본질과 지속 가능한 추모 문화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행사는 아카이빙 전시와 인식조사 설문, 추모 문화를 주제로 한 공연으로 구성되었고, 무용과 연극을 결합한 다원예술 형식의 공연은 '추모의 본질은 우리 마음에 있다'를 주제로 총 3회 진행하고, '기억의 지속'을 표현하여 호응을 받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보건소, 남원드론제전 행사장서 건강체험관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오는 16~19일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5 남원드론제전 with 로봇 행사장에서 건강체험관을 운영한다.

이번 건강체험관은 첨단과학과 시민건강의 만남으로 드론·로봇 등 첨단기술 축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쉽고 즐겁게 건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소 각 팀이 참여해 주제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배우는 체험(퍼즐, 다트, 뷰박스) △스트레스 검사 △심뇌혈관질환 낱말 퀴즈 △금연 다짐 폴라로이드 촬영 △치매인식 개선 OX 퀴즈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관리 방법을 체험으로 배우며 일상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호평

순창군이 2023년부터 추진한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50억 원을 투입해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 245대의 대형 농기계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인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일부 농가에서 제기한 "대형농기계가 대농 위주로만 지원된다"는 불만을 해소하고자, 읍·면별로 트랙터 1대를 소규모 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조정했다.

이에 중·소농 농가에서는 "일손 부담이 크게 줄었고, 농작업 시기에도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농기계 지원뿐만 아니라, 매년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해 농기계 관리 상태와 활용도를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며 사업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